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	
		배포일자	2022년 11월 9일(수) 총 2매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과	담 당 자	• 해양항공물류팀장 • 담당자	이양숙 이성현	☎440-3841 ☎440-3844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간접지원

- 16여 억 원 투입 ... 300여개 기업 55%저렴한 임대료 적용 -
-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 줄이고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 일부를 인천항만공사를 통해 간접 지원한다고 밝혔다.

이 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임대료에 대해 시비 16여 억 원을 투입해 간접 지원함으로써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로 인한 항만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.

인천항의 항만배후단지는 아암물류단지(1·2단지), 북항배후단지, 신항배후단지로 지정돼 있으며, 화물의 보관 등 단순 물류기능에서 스마트화 및 친환경 항만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물류기능을 창출하는 종합물류기지로 성장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.

배후단지별 기본 임대료 수준은 다르나 시의 임대료 지원 사업을 통

해 약 300여개의 입주기업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(공시지가 5%)에 비해 약 55%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물류비 절감을 통한 안정적인 물동량 처리,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.

그간 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8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간접 지원했다.

김원연 시 물류정책과장은 “앞으로도 인천항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이 임대료 절감을 통한 물동량 증대 등 항만물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고 말했다.